

무지개 운수 모범택시 운행 “부릉 부릉”



10일 첫 방송한 이세훈 주연의 SBS 드라마 '모범택시'. 연합뉴스

이세훈 주연 SBS 금토 드라마 시청률 10% 시작 성범죄자 조두순·염전노예 등 실제 사건 모티브

이세훈이 운전하는 '모범택시'가 두 자릿수 시청률로 운행을 시작했다. 1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된 SBS TV 새 금토 드라마 '모범택시'의 시청률은 8.7%~10.7%를 기록했다. 전작 '펜트하우스2'의 첫 회 시청률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그치는 시청률이지만, 역대 SBS TV 금토드라마 첫 회 시청률 중에서는 양호한 성적이다. 첫 방송에서는 김도기(이세훈 분)를 필두로 한 무지개운수 멤버들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출소하는 날 그를 납치하고, 지적 장애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기업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모범택시'는 최근 드라마 시장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장르극과 블랙코미디의 성격을 섞어 몰입감을 높이면서도 유쾌한 감각을 살렸다. 여기에는 일부 장면에서 사용된 레트로

풍의 음악과 연출도 한몫했다. 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신안군 염전 섬 노예 사건 등 실제 있었던 일들을 모티브로 해 시청자들이 사적 복수 대항의 필요성에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현존하는 법 제도가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오랜 기간 누적돼 왔기에 시청자들이 대리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금과 폭행 등의 장면이 불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사건을 작품에 녹여낸 만큼 표현에 주의가 기울여져도 작품이 가진 유쾌한 특성을 얼마나 잘 표현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괴물' 시청률은 5.35%(비지상과 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박선주 감독이 연출한 영화 '비밀의 정원'의 한 장면. 연합뉴스

“상처, 지을 순 없어도 희미해지죠”

박선주 감독 영화 '비밀의 정원'

“잊지 않은 오래된 상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영화를 보며 공감하고 위로받았으면 해요.”

지난 8일 개봉한 영화 '비밀의 정원'은 1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이 잡혔던 소식을 접하면서 심리적 변화를 겪는 주인공 '정원'과 그의 가족들이 이야기다. 영화는 배려 깊은 시선으로 인물들을 바라보고, 이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는다.

박선주 감독의 장면 데뷔작으로 아픔, 미움, 원망, 안쓰러움, 미안함 등 복잡한 감정들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영화 속 인물들은 느리지만 세심하고 단단하게 아픔을 치유해나간다.

“사건 당시와 시간이 지난 현재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의 세

기가 10만급 있다면, 극적으로 10을 향해 치닫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곡선을 그렸어요. 영화적으로 임팩트를 주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실제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할지에 중점을 뒀어요.”

박 감독은 영화에 극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공감을 끌어내고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장례를 치르고 회사에 출근해 일하잖아요. 그런데 가슴은 계속 무너져 내리죠. 이런 모습이 실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했어 복잡했던 감정들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영화 속 인물들은 느리지만 세심하고 단단하게 아픔을 치유해나간다.

“사건 당시와 시간이 지난 현재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의 세

드라마 속 단골 사이코패스

현실반영 극적 이야기 전개 “시청자들 피로할 수 있어”

최근 장르극은 사이코패스를 빼놓고 이야기 진행되지 않는다. 드라마 속 사이코패스는 손쉽게 사랍을 죽이거나 하면(SBS TV '펜트하우스' 주단태와 tvN '마우스' 한서준), 더 거대한 악으로 변신해 신과 같은 힘을 가지려 하거나('루카: 더 비기닝' 황정아) 세상을 멸망시키려(JTBC '시지프스' 시그마) 하기도 한다.

마지막 시즌을 남기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폭주 기관차 '펜트하우스' 속 주단태(염기훈 분)는 사이코패스 전형이다. 그는 타인을 말할 것도 없고 가족에게도 말실에서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계획에 어긋나면는 깜짝 않고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쾌감을 느낀다. 물론 '펜트하우스'에는 비슷한 인물이 많이 등장하지만, 주단태는 그중에서도 정점에 서 있다. 최란 작가 특유의 추리 묘미를 살린

'마우스'는 아예 사이코패스를 주제로 택했다. 주인공 정바름(이승기)이 성요한(권화운)의 뇌가 이식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인 뒤 견잡을 수 없는 폭력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살인을 저지른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후 사망에 이른 성요한의 기억과 자신의 기억에 충돌하는 과정은 인간의 선천성과 후천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든다.

'시지프스'의 시그마(김병철)는 치밀하게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실행하는 인물이다. 원자력 발전소에 핵폭탄을 떨어뜨려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그는 사이코패스로 주인공들을 끊임없이 사지로 내몰았다.

이렇듯 최근 사이코패스 캐릭터가 장르극 단골손님이 된 이유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이나 '정인인 사건' 등 아동 학대법들을 잇을 만한 현실 신문 주요 지면에 등장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공회정 드라마평론가는 11일 “드라마는 결국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사이코패스 주단태역을 맡은 염기훈. 연합뉴스

는데, 실제 사이코패스들과 사회 속 양극화된 감정 등이 드라마 속 사이코패스라는 주제에도 몰입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상투로 봐도 사이코패스 성격을 숨겨야 하는 캐릭터의 모습에서 반전의 묘미를 살릴 수 있고, 극단적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흡입력이 높아 제작자로서 선호할 수 있

다”며 “이런 작품이 너무 늘면 시청자는 피로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최근 장르극 수위가 확연히 높아지고 자극을 추구하다 보니 사이코패스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극을 위한 자극이라면 피로감을 주겠지만 작품의 메시지에 꼭 필요하다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방송가 공식 ‘음악 오디션→파생 예능’

공연·토크쇼 결합한 트렌드

TV조선 '미스터트롯'과 '사랑의 콜센타' 그리고 '방송야학당', '미스트롯2'와 '내 딸 하자', KBS 2TV '트롯 전국체전'과 '트롯 매직유랑단', JTBC '싱어게인'과 '유명가수전'...

대규모 음악 오디션 후 추수자 등 주요 멤버들이 출연하는 파생 예능을 연이어 선보이는 것은 이제 모든 방송사에서 '공식'이 됐다.

'미스터트롯'의 경우 본편 시청률이 35.7%(닐슨코리아 유료가구)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신드롬을 일으킨 만큼 파생 예능도 제대로 흥행했다. 지난해 시작한 '사랑의콜센타'와 '방송야학당'은 방송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작진은 기존

멤버들이 새로운 게스트들을 더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며 영리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오디션 후 파생 예능'이 공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코로나19와도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오디션을 치르고 나면 공연부터 열심히 하는 게 공식이었지만 방역 수칙으로 여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주철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오디션 우승자들을 내세우면 흡입력을 확보할 수 있고 시청률로도 이어진다”며 “출연자들은 무대가 그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노출되고 싶으니 좋고, 시청자는 스타들의 여러 모습을 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니 환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KBS1 | KBS2 | MBC | JIBS/SBS | EBS1 |
|--|---|--|---|--|
|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미담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와이드 웹 플러스 11:50 불행해도 괜찮아 11:55 한국의 인류유산 |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KBS 아침 뉴스타임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속아도 괜찮(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달이 뜨는 강(재) |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35 아모르페티 9:50 밥이 되어(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손현주의 간이역 스페셜 | 6:00 모닝와이드 1부 6:10 2021 마스터즈 골프 8:0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모르페티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4:15 뉴스 15:15 뉴스 16:30 디톡스 유지원 17:00 EBS 뉴스 17:35 포한들 19:05 드라마 길들이기 19:35 자이언티 펑TV | 7:30 두더지콩 8:00 덩동덩 유지원 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반개맨 9:40 우리집 유지원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14:10 EBS 다크프라이 15:15 클래식 e 16:30 디톡스 유지원 17:00 EBS 뉴스 17:35 포한들 19:05 드라마 길들이기 19:35 자이언티 펑TV |
|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킹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3:55 나의 살던 고향은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보물섬(재) 15:20 콘텐트 안테나(재) 16:00 시사건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 12:10 달이 뜨는 강(재)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연중 라이브(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엔다의 신기한 여행(재) 15:30 TV 유지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0 다큐멘터리 3일(재) 17:50 통합뉴스룸 ET | 12:00 12 MBC 뉴스 12:20 시크릿 유주 별의연신 12:50 보보보 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워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좌충우돌 민국 유원기 캠핑 인 코리아 |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분 2021 한국인명방송대상 유상 수상작 오늘부터, #책해가지구 14:00 뉴스브리핑 16:00 2021 한국인명방송대상 유상 수상작 모두를 돌리 얼굴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내모세요 | 7:00 김다미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라디오뉴스 12:30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방송 100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원경의 가느달 아워 |
|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속아도 괜찮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리인 | 18:30 2TV 생생정보 19:50 2S 몬테크리스토 20:30 박원숙의 같이 살아요 3 21:30 달이 뜨는 강 22:10 달이 뜨는 강 22:40 개는 훌륭하다 1부 23:15 개는 훌륭하다 2부 |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0 밥이 되어(재)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안싸우면 다행이야 1부 22:00 안싸우면 다행이야 2부 22:45 이무튼 출근 스페셜 | 18:50 생방송 투데이 1부 19:20 생방송 투데이 2부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1부 21:40 생활의 달인 2부 22:15 통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3:05 통상이몽2 너는 내운명 2부 23:55 나이트라인 | 7:00 KCTV 뉴스 7:30 배워봐서 관광중국어 8:30 방송권력초연대회 수상작 9:00 KCTV 뉴스 9:30 TV 다크스페이스 12:30 KCTV 시청자세상 13:10 TV 다크스페이스 14:00 취미로 먹고 산다 15:20 마음의 고향 서울정터 17:00 KCTV 뉴스 20:00 TV 다크스페이스 21:0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2월

김중상 저단(한) 작명학박사
경기도 평택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의 집을 방문하거나 갈 곳이 생긴다. 48년 독선적이나 자만은 금물. 주변의 지해를 얻어 추진하라. 60년 자녀의 진로로 등분서주. 자금이 지출된다. 72년 자녀에 대한 기쁨이 생긴다. 취업이 필요 시 동북간 방향이 길. 84년 외출이나, 모임이 있다. 이성교제는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37년 마음이 먼저 분주하고 할 일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 주변의 협력을 얻어라. 49년 이몽 이사가 있거나 변화가 생긴다. 부부간 언행자제 필요. 61년 경쟁 심리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든다.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73년 취업, 승진, 합격, 승인, 계약의 기쁨이 있다. 85년 나를 필요로 하면 봉사하라.

38년 몸이 나른해진다. 의욕을 갖고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50년 답답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한 발 뒤에서 내일을 계획, 준비함이 필요. 62년 자식에 대한 일, 가족간 의논할 일이 생긴다. 74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86년 할 일이 늘어나고 취업이나 학업의 기쁨이 있다.

39년 갈 곳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출할 것. 51년 집안에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드리면 좋다. 63년 귀인 도움으로 일이 해결된다. 부부 애정 적신호. 75년 강한 의욕으로 업무는 추진하지만, 대인관계나 이성교제에 올인 하지마라. 87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방법과 대책이 떠오른다.

40년 자녀의 일로 고민 상의가 이루어지고, 부부간 인정조심을 하라. 52년 갑작스런 소식에 놀랐고 있고,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 64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니 여유와 휴식 필요. 76년 자식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라. 88년 스스로 자발적인 활동이나 일은 기쁨 2배, 성과의 효율성은 배가 된다.

41년 주변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 53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하다. 65년 농·수산업분야 아집부터 분주해진다. 77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아름답다. 철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 89년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한단계씩 밟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

42년 술과 연인이 많으니 운전 삼가. 54년 부부간 사소한 논쟁이 다툼으로 변진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삼가. 68년 분서우이 길하고 재물이 있으니 계약, 매매, 인화, 승인 관련 일이 있다. 78년 금전상 이익이 있는 날. 미혼자는 지출이 커진다. 90년 친구와 다양한 대화가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43년 업무추진이 서서히 해결되니 대인관계에 편전을 기하라. 55년 동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마음은 강하나 차분한 계획과 점검이 선행. 67년 내 걱정, 자식 걱정으로 피곤하고 몸살기운이 있다. 79년 직업에 대한 갈등과 변화로 고민. 주변의 협조를 구하라. 91년 연인은 내게 해가 되니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44년 의외로 일이 풀리거나 협조를 받는다. 매매나 가계 등 처분 시 해결된다. 56년 자식문제도 가정불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직장 업무로 스트레스. 69년 과다한 기대나 언동은 금물. 신중함이 필요하고 기대하지 마라. 80년 동료나 친구, 형제자매와 인정이 있고 다툼이 생긴다. 92년 원적이 중상하면 인정받는다.

45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일이 있다. 57년 정도를 지켜 나가면 명이나 부가 따르고 주위로부터 인정받는다. 69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르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81년 부모님, 뒷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익이 발생한다. 93년 운이 호조되고 몸이 분주하나 건강은 유의.

46년 절도있는 행동과 인간관계에 느긋이움이 필요하다. 58년 추진하는 일이 풀리고 의욕 고취. 직장인은 대인관계에 중점을 두라. 70년 계획하는 일이 순조롭고 의욕도 강해진다. 82년 친구간 논쟁 또는 경쟁하면 상대에게 패하거나 사이가 아주 멀어진다. 94년 구매 충동이 생기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

47년 자녀가 소식을 전해오고 용돈이 생기는 날. 59년 친목 또는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음주는 자제하고 절제. 71년 집안 어른께 우환이 올 수 있으니 방문 또는 전화를 드려라. 83년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 생기고 기쁨도 있다. 이성교제 길. 95년 상대와 연애는 내게 해가 될 것. 장담하는 일은 불리.